



시간 여행 1919, 그날의 기억 속으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이 서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선언식은 독립선언서를 둘러보고 한용운의 연설에 이어 만세삼창을 하며 끝났다. 오후 2시 30분께 탑골공원에서는 독자적인 독립선언식이 열렸다. 남녀 학생 4천~5천여 명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행진에 나섰다. 시위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됐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평안남도 평양·진남포·안주, 평안북도 선천·의주, 함경남도 원산 등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경기 개성, 충청남도 예산, 전라북도 옥구, 경상북도 대구, 전라남도 광주 등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치열한 항쟁과 무서운 탄압이 있었던 군산, 천안, 화성의 1919년을 돌아봤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1

군산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지

전북 군산은 대표적인 근대 역사 여행지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 부르는 일본식 건물이 곳곳에 있고, 수탈의 상징인 뜯다리 부두와 창고에, 일본식 사찰도 있다. 하지만 이곳이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지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100년 전 3월 5일 이곳에서는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이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2

- 1 구암동산에 있는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2 1926년 군산항 제3차 축항 기공 기념 쌀탑 사진
- 3 수탈의 상징인 뜯다리 부두

군산은 왜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었을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된 후 목포, 진남포, 마산에 이어 1899년 군산이 개항했다. 금강 하구에 있는 이곳은 인근 평야에서 생산한 양곡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더구나 군산 일대 땅은 비옥하고 땅값은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일본인에게 군산은 황금의 땅이었다. 일본인들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쌀농사를 지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군산의 인구는 한국인이 6천581명, 일본인이 6천809명, 그외 외국인이 214명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228명 많았다. 일본인은 토지를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으로 우리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청년들은 부두에서 등짐을 지고, 부녀자들은 정미소에서 쌀을 골라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 서재순 문화관광해설사는 "부(富)를 쫓아온 일본인이 많이 정착했던 군산은 어느 지역보다 일제의 수탈이 심했다"며 "한강 이남에서 독립을 위해 만세를 가장 먼저 부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3



사그라든 불씨 살린 교사와 학생들

1919년 군산의 만세운동을 살펴보면 우선 일제 수탈의 상징인 뜯다리 부두에서 동쪽으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구암동산으로 가야 한다. 이곳에 올라서면 속살을 드러낸 뽕밭 뒤로 서쪽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금강이 내려다보인다. 이곳이 바로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발원지는 근대식 교육기관인 영명학교(현 군산제일고)와 멜본디여학교(현 군산영광여중고)였다. 독립선언서가 영명학교에 전달된 것은 2월 28일. 영명학교 출신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김병수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0장을 건네받고 군산에 내려와 서울의 독립운동 준비 상황을 은사인 박연세, 이두열 등에게 알린 것이다. 결정된 거사일은 3월 6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래 장날로 정했다. 영명학교 학생들은 학교 지하실과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7천여장을

등사했고, 멜본디여학교 학생들은 몰래 태극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었다. 거사 하루 전인 3월 5일 오전 일본 경찰 10여 명이 영명학교와 멜본디여학교를 급습했다. 학생들이 충구를 향해 옷을 풀어헤치며 저항했지만 숨겨둔 태극기와 만세운동 관련 문서가 발각됐고, 결국 교사 박연세, 이두열 등의 주모자가 연행됐다. 교사들의 연행으로 자칫 거사가 수포가 될 상황. 교사 김윤실은 교사와 학생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하루 앞당겨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인근 예수병원 직원과 교사 20여 명, 학생 100여 명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들고 영명학교 운동장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시작한 만세운동 참가 인원은 서래장터를 지나며 500여 명으로 늘었고, 급기야 1천여 명으로 불어난 만세 행렬은 두 교사가 연행된 군산경찰서까지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시위에 당황한 일본 경찰은 총격을 가하며 진압에 나섰고, 3월 8일까지 90여 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3월 23일 일본인 교장이 관리하던 군산공립보통학교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학생 70여 명이 퇴학원을 제출하며 항거한 것에 대해 교장이 설득과 협박, 회유로 학부형과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자 정미소 청년 노동자

이남울, 김수남 등이 군산공립보통학교를 친일적이고 독립운동에 저해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교사를 불태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와 학생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고문을 받았다. 일주일 후인 30일에는 군산법원 앞에서 야간시위가 진행됐다. 만세운동 관련자 공판을 앞두고 주민 수백 명이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튿날 군산법원에서는 체포된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장에 들어선 순간 방청객들이 만세를 외쳤고, 만세를 외친 이들은 모두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5월까지 총 28회 열린 만세 시위에는 3만700명이 참가해 53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실종됐다. 3·5만세운동의 여파는 전주, 광주, 목포 등으로 전파되며 저항 운동을 이어가게 했다.

"동지들을 위해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

구암동산에는 현재 군산3·1운동역사공원이 조성돼 있다. 역사공원 입구에 있는 세풍아파트 단지가 바로 영명학교 터다. 역사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언제 들어도 울림을 주는 글귀가 방문객을 맞는다. 비탈을 오르면 한동안 군산 3·1운동 기념관으로 사용된 옛 구암교회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다지 크지 않은 고딕 양식의 회

1 태극기 만들기 체험 2 쌀가마니가 가득한 군산항의 1930년대 전후 사진 3 구암동산 꼭대기에 있는 '한강 이남 최초의 3·1운동 발상지' 조형물 4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2층 전시실



1



2

색빛 건물이다. 이 교회는 구암동산에 영명학교와 예수병원을 설립한 윌리엄 전진 선교사가 1893년 세웠다. 현재 건물은 1959년 지은 것이다.

비탈을 따라가면 전진 선교사, 구암교회, 만세 운동 관련 벽화가 이어진다. 호남선교기념예배당 옆으로는 군산3·1운동기념비와 호남선교100주년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그 아래에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새겨져 있다. 옛 영명학교와 멜본 단여학교, 예수병원의 모습이 담긴 벽화도 볼 수 있다.

'대한독립만세'가 새겨진 조형물 뒤편으로 드디어 지난해 6월 개관한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3·5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옛 영명학교의 모습을 본떠 지은 3층 벽돌건물이다.

1층 추모기록실에는 1900년대 군산의 상황, 3·1운동과 3·5만세운동, 영명학교와 멜본단여학교, 구암교회, 근대교육과 선교사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추모의 벽에는 3·5만세운동에 참여해 고초를 겪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한쪽에는 3·5만세운동의 경과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2층은 역사재현실로 김병수의 독립선언서 전달, 교사들의 강제 연행, 재판과정, 군산공립보통학교 방화사건 등을 엿볼 수 있다. 1918년 선포된 최초의 독립선언서 사본, 동대문 만세 시위 사진, 태극기 목판, 옛 군산경찰서 사진도 볼 수 있다. 재판정으로 꾸며진 곳에서는 교사 박연세의 독백이 흘러나온다.

"사랑하는 교인들과 가족들, 이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중략) 주여,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도와주소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금 독립을 부르짖게 하소서."

한쪽에는 영명학교 교사 출신으로 4월 4일 이리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의 칼에 찔려 순국한 문용기의 피 묻은 흰색 두루마기 복제본이 전시돼 있다. 문용기는 일본 경찰이 오른팔을 베자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다시 왼팔을 베자 두 팔을 잃은 몸으로 뛰어가며 만세를 부르다 난자 당했다고 한다.

3층은 체험교육관으로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목판 인쇄, 태극기 미로 체험, 만세운동 전파하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두루마기나 치마저고리를 입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기념관 뒤편에 태극기가 그려진 계단을 오르면 '한강 이남 최초의 3·1운동 발상지'를 알리는 조형물 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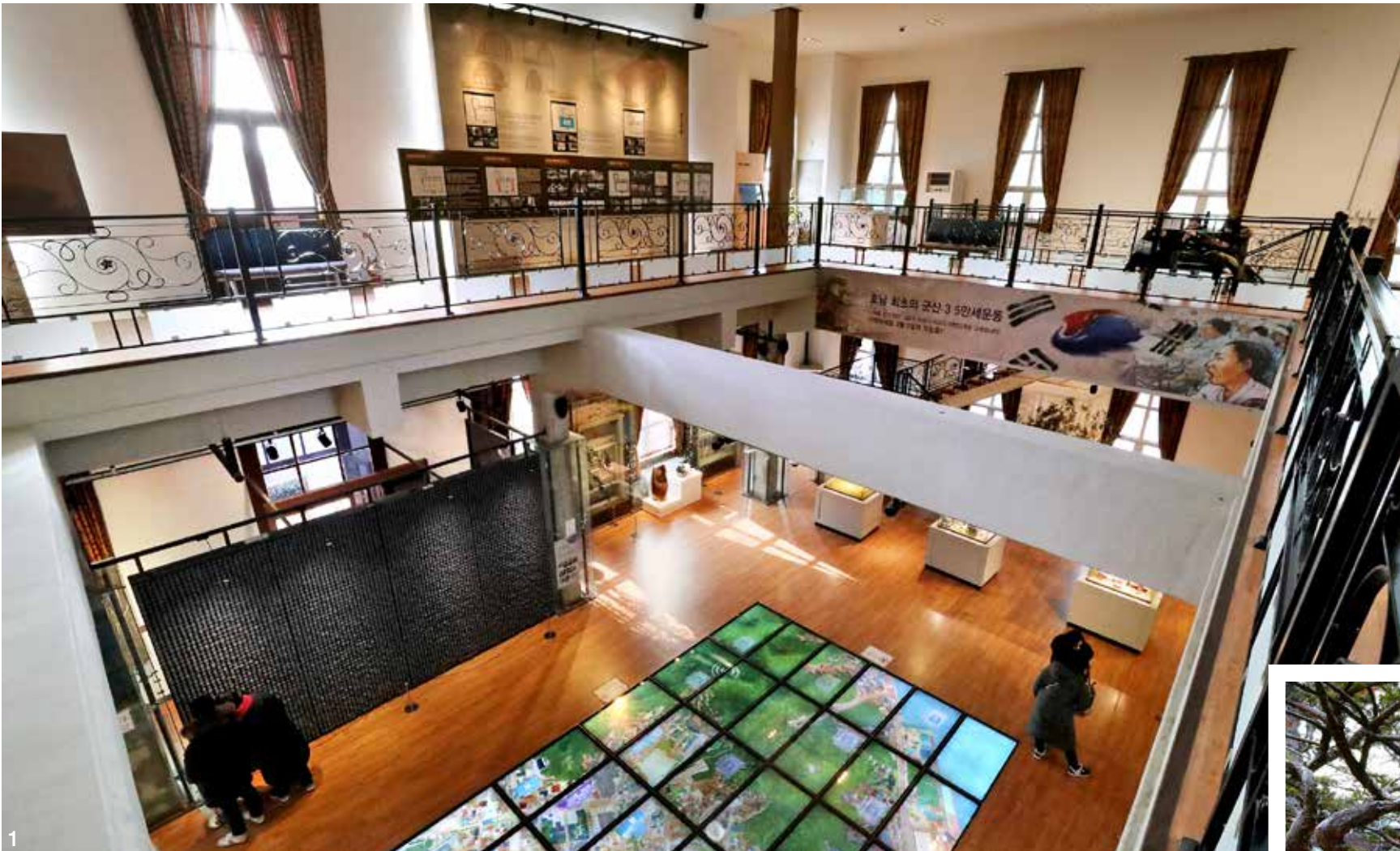
1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3층 전시실
2 옛 구암교회 3 '대한독립만세'가 새겨진 조형물 뒤편으로 호남선교기념예배당이 보인다. 4, 5 문용기의 피 묻은 두루마기 복제본과 태극기 목판

3



5

4



1

일제강점기 풍경 속을 걷다

구암동산을 둘러본 후 근대역사지구로 발걸음을 옮긴다. '시간여행마을'이라 불리는 곳답게 일제강점기 풍경이 곳곳에서 눈앞에 나타난다. 만세운동 당시 이곳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를 든 주민과 만세의 함성이 가득했을 것이다. 뜬다리 부두(부잔교)와 인근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통로였다. 즉 한반도 수탈의 전초기지였다. 1934년 전국에서 생산된 쌀 1천630만석 중 절반이 넘는 870만석이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실려 갔다. 부두 바로 뒤편에는 쌀 선적을 쉽게 하기 위한 군산항역이 있었고, 주변 창고 안팎에는 쌀가마니가 가득했다. 1926년에는 군산항 제3차 축항 기공 기념으로 쌀가마니로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쌓기도 했다. 이런 것을 보고 말린 콩 껍질로 죽을 끓여 먹으며 삶을 영위하던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쌀을 실은 기차가 다니던 철길에는 지금 레일바이크 '시간 여행 꼬마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부두 뒤편에는 세관, 은행, 무역회사, 미두장이 들어섰고, 그 남쪽엔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됐다. 지금 관광객이 주로 찾는 근대역사 지구는 당시 일본인의 활동 무대였다. 일본인 거주지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인은 터전을 잃고 쫓겨나 산등성이에 토막집(토담집, 땅을 파고 가마니로 지붕을 만든 형태의 집)을 짓고 살아야 했다.

1908년 건축된 군산세관은 현재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벨기에에서 수입했다는 붉은 벽돌이 유난히 산뜻해 보인다. 바로 옆에는 군산의 역사를 알아보고,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옆에는 장미(藏米)갤러리가 있다. 과거의 용도는 알 수 없지만 해방 후 이 건물은 위탁시설로 사용됐다. 지금은 체험학습과 예술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옆에 무역회사로 사용됐던 건물은 카페, 근대문학 소통 공간



2

- 1 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2 옛 군산세관
- 3 정갈한 정원을 갖춘 신흥동 일본식 가옥
- 4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3



4

으로 변신했다.

몇 발자국 옆으로 가면 지금은 근대미술관으로 이용되는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이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3월 말까지 '시간을 담은 향기'를 주제로 소장품전이 열린다. 미술관 뒷문을 열면 안중근 의사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안 의사가 수감 생활한 휘순감옥을 재현한 공간, 안 의사 어머니가 쓴 편지 등을 볼 수 있다. 이곳 벽에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문구가 있다.

근대미술관 옆에 있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근대건축관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선 군산에 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의 모형과 군산경찰서, 상공회의소, 형무소 등 옛 건축물의 사진을 볼 수 있다.

해마로를 건너 남쪽으로 향하면 옛 일본인 거주지다. 창문과 문이 번갈아 나타나는 일본식 건물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가 생활한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이곳에 있다.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승려가 지은 금강선사로부터 시작됐다. 1913년에는 대웅전이 들어섰다. 경내에는 1919년 교토에서 제작된 범종이 있고, 2015년 군산시민과 일본인이 성금을 모아 만든 군산평화소녀상,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황국신민화에 앞장선 것을 참회하는 참사비가 있다. 인근에는 한석규·심은하 주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과 테디베어뮤지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이성당의 야채빵과 단팥빵, 최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 잡채, 국물맛 시원한 칼국수, 생선구이와 오삼불고기 등 이 거리에서 맛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복원해 다다미를 깔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이색 체험이 될 것 같다.



천안

병천에서 만난 '한국의 잔 다르크'

충남 천안 병천 아우내 장터. 군중 3천여 명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군중 가운데서 만세운동을 이끈 이는 17살 여학생, 유관순이었다. 그 누구보다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소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 1 유관순 열사 유적지에 있는 추모각
- 2 추모각에 있는 영정. 두 손으로 태극기를 꼭 쥐고 있다.
- 3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뒤편으로 아우내 장터가 있다.
- 4 유관순 생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을 나온 시위대가 이화학당을 지나 자 유관순을 포함한 여학생 7명은 "나를 밟고 넘어갈 테면 가라"는 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뒷담을 넘어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이미 전날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한 터였다.

7인의 결사대는 3월 5일 서울 최대의 남대문역(현 서울역) 만세운동에도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3·1운동 학생 대표 강기덕, 김원벽 등이 주도한 것으로, 서울 지역 학생들과 광무항제(고종) 인산(因山, 장례)을 마치고 귀향하던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만세시위 행렬은 남대문시장~한국은행~보신각, 남대문~대한문~을지로 입구~보신각 등 두 개로 나뉘어 보신각에 모였다.

이렇듯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대거 참여하자 조선총독부는 3월 10일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3월 13일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병천으로 향했다. 그들의 품속에는 독립선언서가 숨겨져 있었다.

모진 고문과 구타의 흔적들

병천은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주도한 곳이다. 군중 3천여 명이 만세시위를 했던 아우내 장터와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 추모각과 초혼묘, 기념관이 있는 유관순 열사 유적지, 생가 등이 이곳에 있다.

아우내 장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돌아본다. 기념관 앞에는 유관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03년 묻은 타임캡슐이 있다. 2102년 4월 1일 열릴 캡슐에는 그의 호적·제적 등본, 유관순을 소개한 교과서와 위인전기, 영정 기념 우표 등 50종 73점이 담겨 있다.

기념관에서는 우선 서대문형무소 시절의 유관순을 만나게 된다. 초상화를 보면 콧방울이 내려앉았고, 얼굴의 오른쪽이 부어 있다. 오른쪽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하다. 무지막지한 고문과 구타의 흔적이다. 그를 고문하거나 때린 일본 헌병이나 순사가 주로 오른손잡이였던 모양이다.

유관순의 생애와 연보, 가계도가 이어진다. 가계도를 보면 애국장, 애족장, 독립장 등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된

다. 독립군 한 명만 있어도 삼대가 망했다는데 이 집안이 아예 했을지 가히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도 볼 수 있다. 옆 친구 어깨에 팔을 두른 유관순은 키가 상당히 커 보인다. 수형기록표에는 신장이 5척 6촌(169.7cm)으로 나와 있다. 이화학당 친구들도 유관순이 키가 크고 장난기가 많았다고 증언한다. 유관순을 이화학당에 진학시킨 선교사 앨리스 샤프 여사의 사진도 볼 수 있다.

옆에는 '冠順'(관순)이 표기된 아버지 유중권의 호적등본이 전시돼 있다. 이 호적에는 가운데 이름이 갓 관(冠) 자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수형기록표, 재판기록문, 족보에서는 너그러운 관(寬)을 쓴다. 본인이 진술해 작성한 기록에 '寬'을 사용해 지금도 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건국훈장 독립장과 1996년 이화여자고등학교가 마련한 이화학당 명예졸업장, 수형기록표, 유관순 열사 재판기록문도 볼 수 있다.



1 독립기념관 태극기헌마당 2 독립기념관에서는 개항과 을사늑약, 3·1운동, 항일무장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3, 4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인 석우 이동녕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내부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 이끌다

그다음 공간은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모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관순을 선두로 한 시위대가 일본 경찰과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고향에 내려온 유관순은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알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설득했다. 거사일을 음력 3월 1일(양력 4월 1일) 아우내 장터로 정하고, 청주·연가·목천 등 각 면과 촌에 연락기관을 두는 등 대규모 만세운동을 추진해 갔다. 3월 31일에는 유관순열사유적지 뒤편 매봉산에서 만세시위를 다짐하는 봉화를 올렸다.

4월 1일 정오 아우내 장터. 나라를 되찾자는 유관순의 열변에 시위 분위기가 고조됐다. 군중들은 장터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병천 한병주재소 한병들이 달려와 총격을 휘둘렀고, 이후 지원군이 합세해 시위자들을 학살했다.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해 19명이 죽고 30명이 부상했다.

유관순은 한병주재소로 돌진해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였는데 어째서 총기를 사용해 내 민족을 죽이느냐"며 항거했다. 하지만 한병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군중들이 해산하

고, 이날 저녁 유관순을 비롯한 시위 주동자들은 체포돼 천안 한병대로 압송됐다.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경성복심법원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됐다. 민족대표 33인에게 주로 3년형이 선고된 것을 볼 때 17살 소녀에게 주어진 형량은 엄청난 것이었다.

기념관에는 용수(죄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머리에 씌우는 통)를 쓰고 잡혀가는 유관순의 모습이 재현돼 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이송할 때 군중의 동요를 막기 위해 머리에 용수를 씌웠다. 유관순의 재판 과정과 옥중 투쟁을 담은 매직비전도 설치돼 있다.

유관순은 재판정과 서대문감옥에서도 저항했다. 공주지방법원에서는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며 일제의 재판을 거부했다. 서대문감옥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고, 3·1운동 1주년 때는 수감된 이들과 함께 옥중 만

세운동을 전개했다.

박선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감옥 8호 방에 있었는데 방 번호순으로 차례로 만세를 부르며 감옥 전체가 메아리치게 했다"며 "이후 지하 독방에 보내지고 엄청난 고문과 구타를 당했지만 독립 의지는 꺾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신 사라지고 초혼묘만 덩그러니

유관순은 결국 9월 28일 아침 숨을 거뒀다. 사인은 방광 파열로 기록됐지만 사실은 고문과 구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탓이었다.

기념관에는 서대문감옥 고문실인 벽관이 재현돼 있다. 벽관은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로 크기로 흠을 파고, 그 속에 독립운

동가를 가둔 일제의 고문 도구다. 2~3일 갇혀 있으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끝에 전신이 마비된다고 한다.

한쪽에는 특이하게 실로 짠 모자 하나가 전시돼 있다. 이화학당 시절 사촌오빠 유경석의 아들이 태어나자 손수 모자를 짜서 선물했다고 한다. 뜨개 모자 옆에는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제작을 위해 고증을 거쳐 만든 흰색 치마저고리와 갓신이 있다.

기념관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면 추모각이 나타난다. 태극기를 두손으로 꼭 쥐 유관순 열사의 표정이 사뭇 당차 보인다. 유적지에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에서 순국한 이들을 기리는 순국자 추모각도 있다.

추모각 뒤편 돌계단을 오르면 유관순의 영혼을 위로하는 초혼묘가 있다. 순국 후 유관순은 정동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다. 감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은 모교 이화학당의 월터 학당장 서리였다. 만세운동에서 부모를 잃고 형제들도 죽거나 끌려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월터는 일제가 시신을 내주지 않자 전 세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는 유관순이 묻힌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지로 개발했다. 유관순의 묘는 무연고 묘로 처리돼 사라지고 말았다. 1989년 마련된 초혼묘에는 태극기와 열사의 사주단자가 모셔져 있다.

초혼묘에서 산길을 조금 더 오르면 봉화대가 있는 매봉산 정상이다. 이곳에선 아우내 장터와 인근의 너른 평야가 내려다보인다. 이곳에선 매년 3월 마지막 날 봉화를 올리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매봉산 너머에는 유관순 생가가 자리한다. 일본 경찰은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직후 가장 먼저 유관순의 생가와 매봉교회를 불태웠다고 한다. 현재의 생가는 1991년 복원한 것이다. 생가는 방 2칸, 부엌, 헛간으로 구성된 조그만 초가다. 안방에서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만세운동을 모의하고, 건넌방에서는 유관순이 태극기를 제작하는 모습이 재현돼 있다. 생가 바로 옆에는 역시 현대식으로 건축된 매봉교회가 있다. 유관순이 어릴 적 놀이터로 삼았던 교회다. 지하에는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에 관한 자료와 사진이 전시돼 있다.

아우내 장터 입구에는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은 유관순이 끌려간 헌병주재소가 있던 곳이다. 공원에는 헛불을 든 유관순과 만세를 부르는 주민들을 형상화한 동상 등이 들어 있다. 병천에서 가장 유명한 순대를 내는 식당도 이 근처에 모여 있다.

저항의 역사 깃든 독립기념관

차로 10분 거리에는 독립기념관이 있다. 3·1운동은 물론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펼쳐진 항일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국난 극복의 역사와 각종 문화유산이 전시된 제1관을 지나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시가 시작된다. 경운궁 중명전에서의 을사늑약 장면을 볼 수 있고, 서대문감옥과 일본군 위안소가 재현돼 있다.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항일무장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5분 거리에는 석오 이동녕 기념관이 있다. 이동녕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해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고 신민회 조직에 참여한 인물이다. 3·1운동 후에는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었다. 기념관에는 석오의 친필 휘호와 서신, 초상화, 사진, 임시정부 문서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 부근에는 선생의 생가가 복원돼 있다.



흑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독립기념관 전경



1

1 제암리 순국기념관 앞마당에 있는 3·1운동순국기념탑
2 순국기념관에 제암리 주민의 만세시위 모습을 담은 '제암리 뒷동산 만세소리' 그림이 걸려 있다.



2

1 화성 제암리 참혹한 집단학살의 현장

1919년 경기도 화성은 독립을 향한 민중의 저항이 극렬했던 곳이다. 주재소를 습격하고, 일본인 소학교에 불을 질렀으며,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기도 했다. 물론 일제의 탄압과 보복 응징도 강했다. 시위대에 총을 쏘 죽이고 연행하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일제 만행의 결정판은 4월 15일 향남면 제암리에서 벌어졌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군인 11명, 일본인 순사 1명, 제암리에 살았던 순사보 조희창, 발안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일본인 거류단장 사사카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했다. 이들은 얼마 전 발안 지역 시위를 주도한 제암리의 주모자를 찾아내 없애려는 토벌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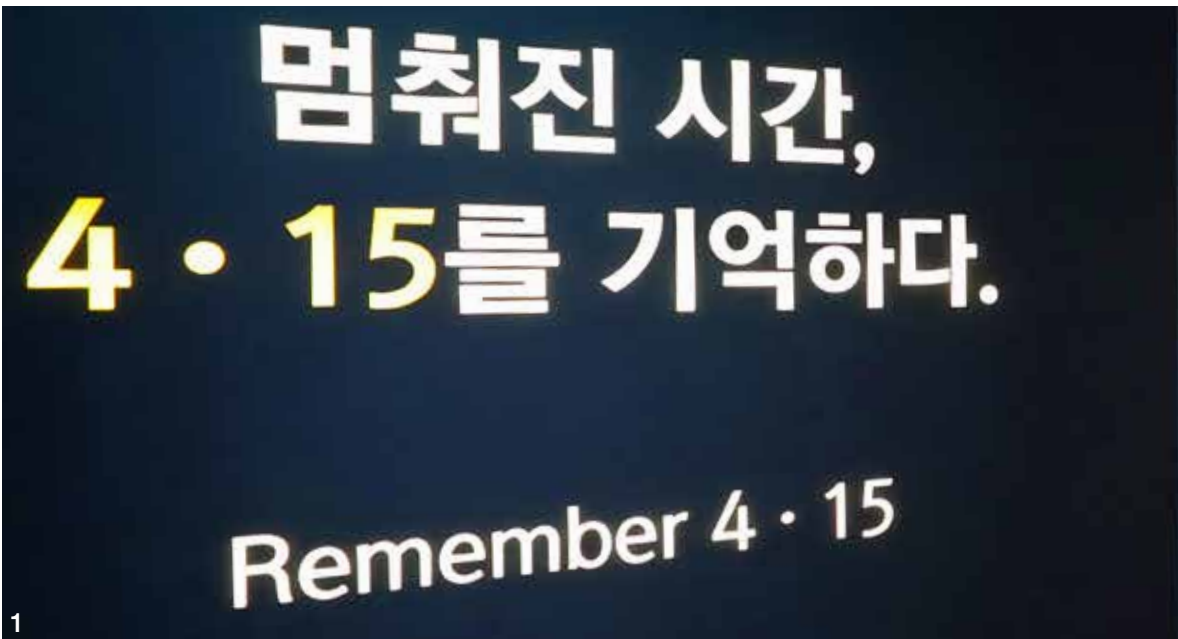
화성 지역 만세운동은 크게 3월 26~28일 송산 지역 사강 장터 시위, 31일 향남 지역 발안 장터 시위, 4월 3일 장안, 우정 지역 시위 등으로 전개됐다. 특히 31일 발안 장터 시위 때는 주민 1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일본 경찰의 발포로 시위자 3명이 사망하자 흥분한 군중이 일본인 가옥에 돌을 던지고 일본인 소학교에 불을 질렀다.

4월 3일에는 장안면과 우정면 주민이 합세해 독립 만세를 부르며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리 주재소를 습격했다. 군중 2천여 명은 총을 쏘는 일본 경찰에 맞서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기에 이른다. 이에 일본군은 4월 5일 새벽 시위 진원지인 수촌리를 급습해 마을 전체 가옥 42호 가운데 40호를 불태웠다.

잊을 수 없는 그 날의 참상

제암리에 들어닥친 토벌대는 "심한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러 왔으니 다들 교회로 모이시오"라고 하며 40세 이상 남자를 소집했다. 그러나 모이지 않자 15세 이상 남자들을 불러모았다. 이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키를 재서 총 길이 보다 작으면 돌려보내고 큰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다. 교회 입구에 있던 일본군 병사들은 교회당 안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바닥에 앉아 있던 주민들은 뛰어오르고 쓰러지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3명이 교회를 탈출했으나 한 명은 총에 맞아 사살됐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숨어 있다 처단됐다. 오직 노경태만이 탈출에 성공해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1982년 제암리 생존 주민 전동례 할머니는 "뒷동산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어서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 안팎에 짚을 늘어놓고 석유를 끼얹어 불을



1



3



2



4

1 제암리 학살 사건을 알리는 순국기념관 내부
2 제암리 순국지사 유해발굴 관련 전시물
3 스코필드 박사 동상 4 순국기념관 바깥 풍경

질렀다. 또 집마다 불을 질러 제암리는 온통 화염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을 창으로 찔렀고, 시체를 토막 내기도 했다. 또 이튿날까지 재가 30리 밖까지 날아가고, 송장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렇게 학살된 사람은 23명이나 됐다. 제암리에서 만행을 저지른 뒤 일본군은 10분 거리에 있는 고주리로 향했다. 이곳은 발안 지역 시위를 주도한 천도교인의 전교실이 있는 곳이었다. 일본군은 고주리를 포위하고 천도교인 6명을 찾아내 칼로 난도질한 후 불태웠다. 하지만 이런 일제의 만행은 그냥 묻히지 않았다. 사건 발생 3일 후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가 이곳에 도착해 그 참

혹한 광경을 사진 찍고 '일본군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해외 여론이 악화하자 일제는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회부해 무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리타 중위는 학살 행위가 인정되면서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학살의 기억 남겨진 순국기념관

현재 제암리에는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을 보여주는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제암리교회 옆에 마련돼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1959년 제작된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서 있다. 탑에는 월탄 박

종화가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에 관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스물아홉 분의 순국열사는 이렇게 푸른 피를 불 속에 뿌려 겨레의 님을 지켰다.(중략) 후세에 영원히 이 사실을 전하려 하여 당시 피화처였던 예배당 터에 정성을 모아 아담한 기념탑을 세운다" 기념관 안에는 화성 지역 3·1운동 전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돼 있다. 제암리 학살 사건과 일제의 만행 사진이 함께 수록된 독립운동가 정한경의 '한국의 사정', 학살 사건 희생자 이름을 실은 독립운동가 이병헌의 '3·1운동비사', 화성 지역 만세시위 때 체포된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암리 생존자들의 증언, 아리타 중위 판결문 등을 볼 수 있다. 또 유해발굴 당시 출토된 불탄 교회 건물 부재, 동전, 단추, 병 조각, 못

등이 참혹한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 기념관은 전 세계의 집단학살에 관한 전시도 하고 있다. 간도 참변, 홀로코스트, 게르니카 학살, 난징 대학살, 코소보 사태,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기념관 앞에는 23개의 크고 작은 돌기둥으로 이뤄진 '자유롭게 저 하늘을'이란 제목의 조형물이 들어서 있고, 뒤편 언덕에는 무참히 학살된 23인을 함께 모신 순국묘지가 있다. 언덕 아래에는 제암리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를 위한 공간도 있다. 카메라를 들고 바위에 앉아 있는 스코필드의 동상 옆에는 '그가 있어 제암리가 기억되고...'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⑦

INFORMATION

전국 7개 도시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의 불길은 전국으로, 해외로 번져나갔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두 달간 발생한 시위는 1천692건이며, 참여 인원은 79만9천17~103만73명이다. 지역별 시위 건수는 서울·경기가 427건, 황해도 177건, 평북 148건, 경남 140건, 경북 118건, 충남 117건, 평남 112건 순이었다. 국외에서는 99건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는 모두 174건, 사망자 수는 725~934명이었다.

3·1운동 관련 장소

[서울 종로]

서울 종로구에는 3·1운동 관련 장소가 많다. 만세운동의 출발지인 탑골공원을 비롯해 거사를 논의하고 2·8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중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 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터,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한 태화관 터, 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인 승동교회, 만해 한용운이 거처로 사용하던 유심사 터, 손병희의 집터 등이 있다. 3·1운동과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 임시특파원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1875~1948)가 살던 달구사라는 이름의 집도 있다.

[서대문독립공원]

일제강점기 의병투쟁, 3·1운동, 항일투쟁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른 선열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문 등이 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가 1907년 건립해 경성감옥이라 부른 곳이다. 1945년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가두고 고문과 박해를 가했다. 김구, 강우규, 유관순 등이 이곳에 수감됐다. 해방 후 1946년에는 경성형무소·서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반민족행위자들이 수용됐다. 군사정권 때는 사국사범과 민주화 투사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일제강점기를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2021년 독립공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양양 만세고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지도자 22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해 농민 1천6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농민 5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6~7일에는 시위대 1천500여 명이 양양경찰서를 습격해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고, 7일 밤에는 농민 100여 명이 면사무소를 습격했다. 9일에는 농민 600여 명이 기사문리의 주재소를 포위하자 일본 경찰이 발포해 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양양 만세운동은 영동권 최초의 만세운동이다. 사상자는 200여 명으로 강원도 전체 만세운동 사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사문항에서 하조대로 가는 고개는 현재 만세고개로 불린다. 이곳에는 3·1운동 기념탑이 서 있다. 양양 옛 관아 터인 현상공원에도 기념비가 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양주 가래비 3·1 만세운동 재현

[안성3·1운동 기념관]

안성 만세운동은 3월 11일 시작해 4월 3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4월 1일에는 주민 약 1천여 명이 주재소를 방화하고 우편소를 파괴했으며 일본인 상점과 고리대금업자의 집을 부쳤다. 또 면사무소를 습격해 서류, 집기, 일장기 등을 불태웠다. 2일에는 군중 2천여 명이 죽산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를 파괴했다. 일죽면에서도 주민 수백명이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이 기간 26명이 죽고, 약 800명이 체포됐으며, 177명이 투옥됐다. 기념관에는 관련 자료와 유물이 전시돼 있다.

[부산진일신여학교]

경남 최초의 신여성 교육기관으로, 부산 지역 최초로 만세시위가 시작된 곳이다. 3월 11일 밤 9시 교사 2명과 학생 11명은 2시간 동안 좌천동 거리를 누비며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교사 2명은 1년 6개월, 학생 11명은 6개월간 복역해야 했다. 현재 이곳은 100년 전 신교육을 받던 여학생들의 생활, 부산 지역 3·1운동 등을 보여주는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다.



사진 / 이종백 작가 제공

양양 만세고개 3.1운동 기념탑

[제주 조천 만세동산]

3월 21일 미밋동산(현 만세동산)에 모인 핵심 인사 14명과 인근 지역의 서당 생도와 주민 등 700여 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라고 쓴 혈서와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다. 시위는 니흘간 이어졌으며 시위 주역들이 체포되면서 종료됐다. 만세동산에는 추모탑, 제주항일기념관, 독립유공자 묘역, 기념광장 등이 조성돼 있다.

[양주 가래비 3·1운동 순국 기념비]

양주의 만세운동 장소는 백석면(현 백석읍)과 광적면이다. 3월 27일 밤 양주군 백석면 주민 20~30명이 횃불 만세시위를 벌였고, 28일에는 주민 600여 명이 오산리 대들벌로 행진하며 시위했다. 이날 가래비에서 주민 350여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일본 헌병의 발포로 백남식·김진성·이용화가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이후 이곳은 '만세배미'라 불리게 됐다. 순국가념비 옆에는 순국열사의 흉상과 횃불 모양 봉화탑이 서 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전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절명시(絶命詩)를 쓰고 목숨을 끊은 애천 황헌 유품, 저항시인 이육사 친필 원고,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항일독립유산 56점을 볼 수 있다.

2월 19일~4월 21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가기록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전시다.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품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조명한다. 기미 독립선언서, 1919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문, 임시정부가 파낸 기관지 '독립신문', 신한청년당 기관지 '신한청년' 창간호 등 자료 200여 점이 전시된다.

2월 22일~9월 1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서울과 평양의 3.1운동을 소개하는 전시다. 3·1운동의 준비와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하면서 느꼈을 분노와 불안, 감옥에 갇힌 자의 투쟁과 고통, 두려움을 전시에 담았다.

3월 1일~5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

'자화상-나를 보다'

글씨, 그림, 사진 등 독립운동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록을 예술적, 역사적 관점으로 풀어낸다. 백범 김구가 경교장에서 쓴 친필 유묵 '학운야학'이 최초로 공개되고, 구본웅의 '김상옥 의사의 장렬한 최후', 홍선대원군의 '충란도' 등이 전시된다.

3월 1일~4월 21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전시회

'기록 기억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모은 전시다. 역사적 사료와 해외 소장 자료, 실물본 일부가 소개된다.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모습을 담은 사진 3장 원본도 최초 공개된다.

2월 25일~3월 20일, 돈의문박물관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고종황제 3·1운동, 순종황제 장례식과 6·10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왕조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사와 독립운동사를 되짚어 볼 수 있다.

2월 28일~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책 속, 경남 3·1운동 정신의 기억'

3·1운동 관련 도서, 경남 독립운동 현장, 운동가를 소개하는 전시다. 경남대표도서관은 토코콘서트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3월 7일), '경남 독립운동 정신을 찾아서' 강연회(3월 9일)를 마련한다. 3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에는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상영한다.

2월 23일~4월 30일, 창원 경남대표도서관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전시회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 특별전' <대한콜렉션>

간송 전형필의 삶과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전시다. 간송이 20대 때부터 우리 문화재를 구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보여준다. 지난 5년간 서울 DDP에서 열린 간송 특별전의 마지막 행사다.

1월 4일~3월 3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국의 독립운동과 캐나다인'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린 프랭크 스코필드(1889~1970·한국명 석호필) 박사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도운 캐나다인 5명에 관한 글, 영상, 사진 50여점이 전시된다.

2월 23일~3월 31일, 서울시청 시민청 시티갤러리

'모두를 위한 세계'

세계사적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바라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일본, 대만, 베트남, 덴마크 등 6개국 작가가 다양한 국가 통치 아래 드러나는 정체성을 보여준다.

3월 1일~5월 26일, 시립 남서울미술관



간송 특별전 '대한콜렉션'



고종 국장

사진 / 서울시 제공